

보도자료

2011년 3월 30일(수)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 (☎750-2730)
인터넷정책과 김도환 사무관 (☎750-2742) hwan@kcc.go.kr

방통위,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 마련

- ActiveX 대체기술 보급, 웹 표준기술(HTML5) 확산 등 본격 추진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3월 30일, ActiveX 대체기술 적용 확산,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환경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「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」을 발표했다.

※ ActiveX는 MS社의 웹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되는 기술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술

우리나라는 특정 웹브라우저(Internet Explorer, 이하 IE)에서만 구동되는 ActiveX의 광범위한 사용과 구버전 웹브라우저(IE6.0) 사용률이 높아 웹 호환성 및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.

※ ActiveX 사용률 조사결과 : 국내 주요 100개 사이트 중 72개, 국외는 20개 중 1개 사이트 사용('10. 8월~11월 조사결과, KISA)

※ 대표적인 구버전 브라우저 IE6.0 사용률은 국내 19.9%, 국외 4.5%('11. 3월 현재)

ActiveX는 IE에서만 동작되기 때문에 Firefox, Safari, Chrome 등 다른 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전자서명, 개인방화벽, 키보드보안 등 특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, 이용자들이 습관적으로 ActiveX를 다운로드하여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좀비PC를 만드는 악성코드 감염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.

또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환경에서도 ActiveX로 인한 인터넷서비스 호환성이 떨어져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.

※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는 IE이외에 사파리, 크롬, 파이어폭스 등의 다른 브라우저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

이에 따라 방통위는 「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국내 주요 100대 사이트 대상 웹 표준 적용 및 인터넷 이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주요내용으로는

①ActiveX 대체기술 적용 확산사업으로 ▷ActiveX 대체기술 개발·보급 ▷주요 100대 사이트 ActiveX 대체기술 적용지원 ▷ActiveX 대체기술 교육 추진 등을, ②브라우저 다양화 및 웹 환경 고도화사업으로는 ▷구버전 브라우저 업그레이드·다원화 추진 ▷차세대 웹 표준(HTML5) 전환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.

먼저 ActiveX 대체기술 적용 확산과 관련하여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서명이 가능한 ‘스마트사인’(Smart Sign, ETRI '10년 개발)기술을 금융권 중심으로 적극 보급하고, 주요 웹 사이트 대상으로는 ‘Active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’을 배포할 계획이다.

또한 금융(로그인, 방화벽), 포털(전자결제, 파일업로드), 게임(키보드보안) 등 방문자수가 많고 개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100대 사이트를 선정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체기술을 지원한다.

주요 100대 사이트와 P2P 및 개인쇼핑몰 등 취약 사이트 기술 실무자를 대상으로 KISA 주관의 웹 표준기술 실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.

구버전 브라우저(IE6.0) 업그레이드 및 다원화를 위해서는 브라우저별 기능 소개 및 다운로드 제공 등의 온라인 지원체계가 구축되고, 멀티 브라우저 이용 가능 사이트 인증제 도입, 구버전 서비스 종료시점 설정 및 포털사 등과 함께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 등이 추진된다.

아울러 차세대 인터넷 언어인 **HTML5**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. 차세대 웹 국제 표준 대응체계 강화는 물론 웹 표준 준수 사이트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며, 웹 표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 또한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.

※ **HTML5** : 기존 텍스트와 그림 중심으로 표현되는 기술 중심인 **HTML4**에 멀티 미디어 기능, 게임 및 이미지 편집 등이 웹 자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국제 표준 문서로 W3C에서 국제 표준화 추진 중임

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, 공공기관, 인터넷기업, 전문가, 이용자 등 각계가 참여하는 ‘인터넷이용환경개선포럼’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.

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증 국장은 “선진 인터넷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웹 표준기술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고, “정부는 ActiveX 대체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웹 표준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웹 사이트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 **ActiveX** 대체기술 가이드라인, 웹 표준 기술, 각 브라우저별 기능 및 다운로드, 차세대 웹 표준(HTML5) 등에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기술지원센터(<http://web.kisa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붙임 1.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(요약) 1부
2. 인터넷 이용환경 조사결과 1부
3. Active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(요약) 1부
4. ActiveX의 개념 및 문제점 1부. 끝